

二重經濟의 發展메카니즘과 相對的 貧困感

李 亨 純*

<目 次>

- I. 序 言
- II. 二重經濟와 發展의 三段階論
- III. 開發戰略에 대한 評價
- IV. 經濟運營에 대한 評價
- V. 結 語

I. 序 言

일반적으로 經濟發展의 메카니즘을 구명하려면 적어도 1世紀에 걸친 그 經濟의 實績에 관한 資料를 分析하고 發展메카니즘에 관한 理論假說을 檢證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극히 長期的인 經濟問題이며 基本的으로는 經濟史家들의 課題라고 하겠다.¹⁾

한때 1950년대 중반에 開發途上國에 관한 開發理論들이 均衡成長理論,²⁾ 不均衡理論³⁾ 또는 二重經濟의 發展메카니즘⁴⁾이라는 이름아래 流行한 일도 있었지만 이들 開發理論들도 60年代에 들어오면 주춤해지고, 開發途上國의 發展을 解明하는데 失敗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1984年度 定期學術大會」(1985 2.22, 서울)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W.W. Rostow,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1952.

2)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6.

3) A.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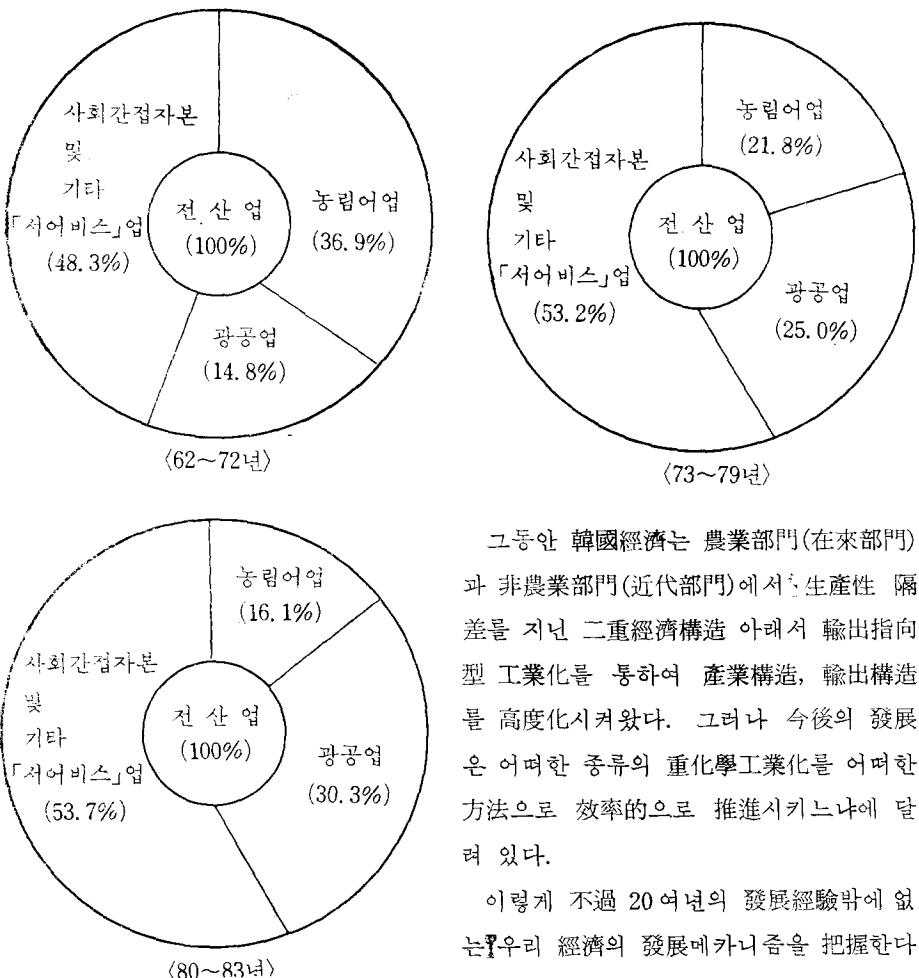
4) W.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May, 1954 및 J.C.H. Fei and G. Ranis, *Development of the Labor Surplus Economy*, 1964 참조.

5) 原覺天編, 『發展의 統合理論序說』, アジア經濟研究所, 1972 참조.

우리 經濟는 1962 年 第 1 次 5 個年開發計劃이 착수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막대한 外國援助에 의해 지탱되어 왔고 農林漁業部門은 國內總生産(GDP)에서 40%(1962 年), 雇傭人口에서 63%(1963 年)나 되는 比重을 차지하는 後進國型 産業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60 年代부터 수차례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해 온 지난 20 餘年동안 年平均 8%를 넘는 經濟成長率을 보였고, 특히 製造業은 年平均 15.6%, 社會間接資本 및 서어비스部門은 年平均 8.8%의 實質成長을 하였다.⁶⁾

〈그림 1〉 우리나라의 産業別 實質 GNP 構成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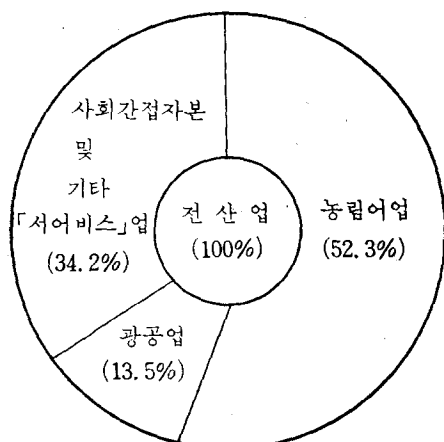
資料: 韓國銀行 資料에서 作成

그동안 韓國經濟는 農業部門(在來部門)과 非農業部門(近代部門)에서 生産性 隔差를 지닌 二重經濟構造 아래서 輸出指向型 工業化를 통하여 産業構造, 輸出構造를 高度化시켜왔다. 그러나 今後의 發展은 어떠한 종류의 重化學工業化를 어떠한 方法으로 效率的으로 推進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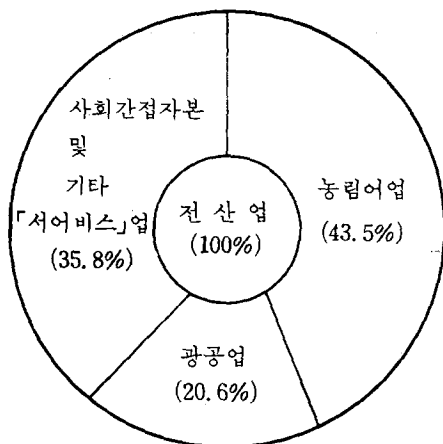
이렇게 不過 20 餘년의 發展經驗밖에 없는 우리 經濟의 發展메카니즘을 把握한다는 것은 사실상 不可能한 노릇이지만 우

6) 韓國銀行, 『주간내외경제』, 제1193호, 1984 年 12 月 15 日, pp.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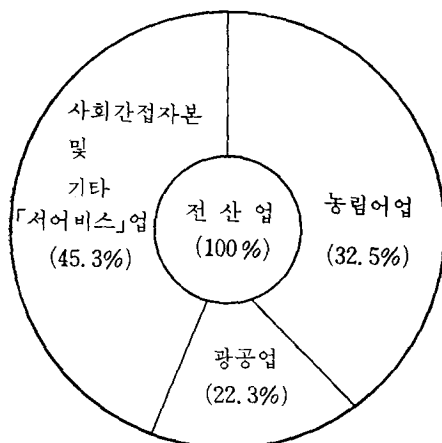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의 産業別 就業人口 構成比



〈66~72년〉



〈73~79년〉



〈80~83년〉

리와 비슷하게 二重經濟構造를 가진 後發國(late comer)으로서 뒤늦게 工業化에 成功한 日本의 發展經驗을 주로 評價의 基準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開發戰略의 虛實을 吟味하려는데 本稿의 1次의인 目的이 있다.

Ⅱ. 二重經濟와 發展의 三段階論

1. 賃金의 隔差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어느 나라나 二重經濟構造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나라 經濟속에는 規模別, 地域別, 人種別, 性別, 熟練度別, 業種別

資料 : 韓國銀行 資料에서 作成
差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二重經濟란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의 隔差(賃金所得隔差)가 격심하고 在來部門, 구체적으로는 農村에서 遊休勞動力(僞裝失業)이 近代部門이 發展함에 따라 낮은 賃金으로 勞動力을 供給할 수가 있으며 勞動의 生産性이 낮은 部門에서 높은 部門으로 勞動力이 移轉하는 經濟, 따라서 産業構造도 1次産業에서 2次産業으로, 그리고 3次産業으로 변모해가는 發

展패턴을想定할 수가 있다. 〈그림 1〉은 實質 GNP에서 차지하는 產業別 構成比, 〈그림 2〉는 產業別 취업인구의 構成比를 각각 표시한 것이며, 〈표 1〉만 보아도 우리 經濟의 二重構造가 변모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產業別 生産性的 隔差를 가진 二重經濟構造 아래서 經濟成長이 加速化되면 賃金の 隔差(所得의 隔差)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한편 成長政策으로 總資本形成率은 높아질 것이다. 2次 5個年開發計劃의 施行年度(1962年)를 기준으로 해서 그 以前과 以後(1962年~1969年)에 있어서 實質 GNP에서 차지하는 成長寄與率을 보면 民間設備投資의 그것이 12.5%에서 34.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輸出의 成長寄與率도 10.4%에서 34%로 크게 증가하였다.⁷⁾ 이것을 보아도 우리 經濟가 輸出指向型, 民間設備投資主導型의 成長패턴임을 알 수

〈표 1〉 經濟開發의 成果

	단위	1962(A)	1971	1981(B)	B/A(백)	1983
국민총생산(불변)	억 U \$	126.7	309.0	650.0	5.1	751
인 구	백만인	26.5	32.9	38.7	1.5	40.6
1인당 GNP(경상)	U \$	87 ¹⁾	285	1,735	18.5	1,880
실 업 륜	%	8.2 ²⁾	4.5	4.5	0.5	4.1
산 업 구 조 (부가가치기준)		100.0	100.0	100.0		100.0
농 립 어 업	%	36.6	26.8	15.8	—	13.7
광 공 업	%	16.3	22.2	29.5	—	28.9
사회간접자본및기타	%	47.1	51.0	54.7	—	57.4
〈고 용 기 준〉						
농 립 어 업	%	63.1 ²⁾	48.4	34.2	—	29.7
광 공 업	%	8.7 ²⁾	14.2	21.3	—	23.2
사회간접자본및기타	%	28.2 ²⁾	37.4	44.5	—	47.0
수 출(통 관)	백만 U \$	55	1,068	21,254	386.4	24,445
수 입(통 관)	백만 U \$	390	2,394	26,131	67.9	26,192
수 출 구 조		100.0	100.0	100.0	—	100.0
1 차 산 품	%	72.6	13.8	9.6	—	9.2
경 공 업 제 품	%	20.3	71.0	46.0	—	39.5
중화학공업제품	%	7.1	15.2	44.4	—	51.3
총 투 자 율	%	12.8	25.1	29.1	2.3	27.6
국 내 저 축 율	%	3.4	14.6	21.7	6.4	24.4

註: 1) 1975年 價格

2) 1963年 價格

資料: 『韓國經濟의 動向과 展望』, 韓國銀行, 1984.6, p. 5.

7) 李亨純, 『韓國經濟의 數量分析』, 博英社, 1974,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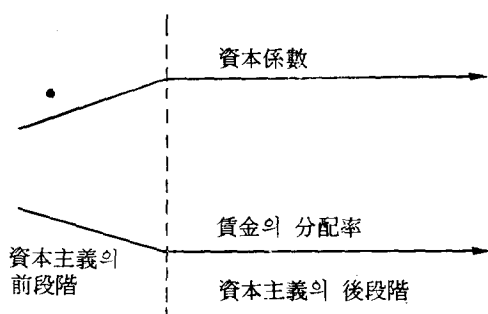
가 있다.

원래 二重經濟構造 아래서의 開發戰略의 基本方向은 潛在的 成長能力을 活用하면서 隔差經濟를 解消시키는 데 두어야 하는 법이지만 輸出指向型 工業化는 賃金의 隔差를 야기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發展의 三段階論

일반적으로 發展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實質 GNP에서 차지하는 總資本形成率은 높아지고, 반면에 賃金의 相對的 分配率은 낮아진다. 發展이 加速化되면 資本係數(總資本形成率)의 움직임과 賃金의 相對的 分配率이 어떻게 變하는가에 대하여는 定說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림 3〉 칼도의 假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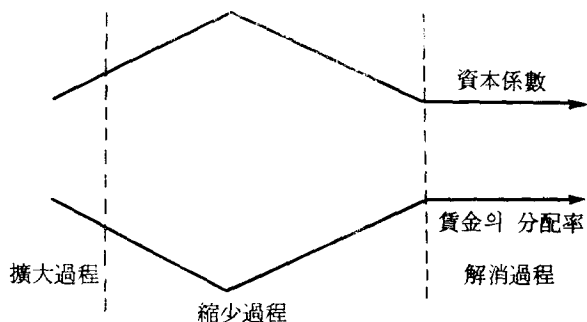


우선 資本係數의 長期的 趨勢에 대해서는 經濟成長理論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그 安定性을 前提할 수도 있고, 그 可變性을 前提할 수도 있다. 칼도(N. Kaldor)는 이 兩面性에 着眼하여 資本係數가 段階的으로 變化한다는 假說을 내세우게 되었다.⁸⁾ 칼도는 〈그림 3〉에서 보듯이 資本主義 經濟發展의 第1段

階에서는 資本係數가 상승하지만 第2段階에 들어오면 安定된다고 보았다. 한편 賃金所得의 分配率은 資本係數와 逆으로 추세변동을 하는 傾向이 있다고 보았다.

資本係數의 움직임에 관한 또 하나의 假說은 최근 實證研究를 통하여 얻어진 것인데 先進資本主義經濟에서 資本係數는 經濟發展의 어느 段

〈그림 4〉 發展의 3段階論



階에서는 떨어지고 있으며, 한편 賃金所得의 相對的 分配率은 상승하는 傾向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또한 資本係數와 賃金의 相對的 分配率이 安定되는 것은 經濟가 成熟期段階에 접어들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資本係數와 賃

8) N. Kaldor, "A Model of Economic Growth," Economic Journal, Dec. 1957 참조.

金の 相對的 分配率의 추세는 〈그림 4〉와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日本の 發展經驗을 보면 日本은 明治維新(1868年)이 계기가 되어 歐美의 政治制度, 經濟制度 그리고 敎育制度를 積極的으로 導入했고 輸入技術을 模倣하고 改良하면서 成長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의 生産性隔差를 가진 二重經濟構造 아래서 工業化를 추진시켰는데 두 部門의 隔差(賃金隔差)가 解消되는 이른바 「轉換點」(turning point)이 나타나는 時期를 보면 학자들에 따라 그 見解를 달리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195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⁹⁾

이와같이 日本의 經濟發展은 二重經濟의 擴大, 縮少, 解消의 過程을 거쳐 오늘날의 先進經濟를 이루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日本의 經濟發展에서 賃金の 相對的 分配率을 有利하게 할 수 있었던 基本的인 要因을 찾는다면 勞動人口와 資本設備의 相對的 增加速度와 技術進步의 性格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勞動人口가 증가할 때 이것을 앞지를 수 있는 資本蓄積이 이루어져 相對的으로 勞動力이 稀少 또는 不足해지고, 技術進步로 勞動의 生産性을 提高시켜 賃金의 上昇壓力이 작용하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

1964年 來韓하여 우리나라의 長期開發戰略을 提言했던 레이니스(G. Ranis)와 후에(J.C. M. Fei)도 이러한 견지에서 韓國의 工業化 努力의 選擇基準을 마련한 바 있다.¹⁰⁾ 이에 대해 여기에서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¹¹⁾ 二重經濟의 勞動過剩型經濟가 成熟期經濟(economic maturity)에 進入하려면 勞動人口의 成長率을 工業部門에서 吸收해야 하며 이것을 年間 工業化 努力(industrial effort)이라고 불렀고, 成熟期經濟를 달성한다는 것은 勞動人口의 增加率, 計劃視野(planning horizon), 그리고 工業化 努力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3. 相對的 貧困感

이상의 論議는 勞動過剩型 二重經濟, 특히 過去 100여년이 넘는 日本經濟가 걸은 發展메카니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메카니즘을 우리 經濟가 그대로 거쳐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 經濟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成果나 現在 안고 있는 문제들을 評價하는 데 하나의 基準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發展메카니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經濟는 現在 어디까지 와 있

9) 南亮進, 『日本經濟の轉換點』, 創文社, 1969 참조.

10) J.C.H. Fei and G. Ranis, *Towards a Long-run Development Strategy for Korea*, 1964.

11) 李亨純, 『工業構造高度化와 技術革新』, 韓國經濟研究센터, 大韓商工會議所, 1977, pp. 55~56 참조.

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 億弗의 輸出目標에서 重化學工業製品이 차지했던 比重은 38%였던 것이 지금은 330 億弗의 輸出目標에서 그 比重이 약 54%로 증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經濟의 發展過程을 거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經濟問題 중의 하나는 重化學工業化의 發展戰略과 그 育成方案이었다고 본다. 뒤이어 거론하겠지만 1977 년에서 1978 년에 걸친 大企業의 勞動人力(熟練勞動)에 대한 超過需要는 大企業部門의 賃金上昇을 加速化시켰으며, 이것이 기타 部門의 賃金上昇의 壓力을 유발시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인플레이션은 二重經濟의 生産性隔差에서 유발될 수 있는 일종의 構造的 인플레이션이며, 이른바 「스필·오버 인플레이션」(spill-over inflation)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아름든 우리 經濟는 이 時期에 二重經濟의 縮少過程에 部分的으로 進入하였다는 假說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하나의 假說에 불과한 것이지만 보다 重要的 것은 「相對的 貧困感」(relative deprivation)이 극도로 深化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즉, 經濟成長으로 1人當 所得水準은 상승하여 絕對的 貧困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만 利潤所得과 賃金所得의 隔差는 물론, 勞動所得의 生産性隔差에서 오는 賃金所得間의 隔差問題는 매우 심각한 社會的 動搖를惹起시키게 된다는 데 問題의 深刻性이 있는 것이다.

相對的 貧困感은 사람들의 效用이 相互依存되어 있는 데서 발생하며, 이는 「사촌이 논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社會心理의 概念으로 적절히 表現된다. 經濟成長은 절대적인 所得을 增加시키지만 계층간의 所得隔差(相對的 貧困感)를 深化시켜 相對的으로 成長의 혜택을 덜 받은 계층의 소외감 또는 不滿을 초래하여 社會全體의 厚生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해로드(R.F. Harrod)와 허쉬(F. Hirsh)는 階層財(positional goods)의 概念을 가지고 이 문제를 分析하였다.¹²⁾

일찍이 케인즈(J.M. Keynes)는 勞動者는 “제 자기 職業이 다르면 貨幣賃金이 相對的으로 감소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實質賃金이 相對的으로 감소하는 데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¹³⁾ 이는 相對的 貧困感의 重要性을 말해주는 것이며, 특히 二重經濟의 擴大過程에서 發展의 가장 큰 阻害要因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12) 李萬雨, 『厚生經濟學』, 法文社, 1985, 第11章 참조.

13)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 14 참조.

Ⅲ. 開發戰略에 대한 評價

1. 國民的 合意의 重要性

二重經濟의 生産性隔差를 가진 後發國이 뒤늦게 工業化에 뛰어 들 때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發展의 基本戰略을 그 生産性 隔差를 解消시키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은 後發國으로서 工業化를 추진시키면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歐美로부터 技術을 導入하여, 이를 改良한 이른바 「模倣의 成長過程」(imitative growth process)을 거쳤지만, 明治維新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成功의 要因으로 다음 세가지가 거론된다.¹⁴⁾ 그 하나는 歐美先進國을 따라 잡아야 하겠다는 이른바 「따라잡기 結束」이다. 다른 하나는 勤勉精神, 또 다른 하나는 逆說의이기는 하지만 日本이 無資源國인 섬나라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¹⁵⁾ 韓國經濟의 發展段階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따라잡기 結束」이다.

이 「따라잡기 結束」이란 거센크론(A. Gerschenkron)이 펴친 「相對的 後進性 假說」을 의미한다.¹⁶⁾ 이 가설은 프랑스, 獨逸, 러시아의 經驗을 감안하여 뒤늦게 工業化에 뛰어 든 「後發國」의 經濟發展을 모델化한 것인데 그 내용은 ① 後進經濟가 工業化를 시작할 때에 먼저 緊張狀態가 存在한다는 것, ② 工業化는 後進經濟가 利用可能한 技術의 蓄積이 크면 클수록 有利하다는 것, ③ 後進經濟는 先進國과의 競爭에 직면하여 가장 近代의이고 가장 效率性이 높은 技術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④ 工業化는 大規模生産이 擴張되면서 革命的인 發展을 수반한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①의 命題가 「따라잡기 結束」(catching-up hypothesis)인데, 그 核心은 日本의 경우 明治維新의 過渡期에서 볼 수 있듯이 政治的·社會的 緊張을, 그리고 外勢의 威脅은 日本人의 民族主義를 자극하여 歐美先進諸國을 따라 잡아야 하겠다는 國民的 合意를 모으게 하였고, 이것이 工業化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달(G. Myrdal)도 後發國의 經濟發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國民的 合意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發展의 目標設定問題(target for national integration)라고 보았다.¹⁷⁾ 이러한 視角에서 볼 때 相對的 貧困感의 深化가 國民的 合意를 모으는데 阻害要

14) 日本經濟新聞社編, 『資本主義 1983年』, 日本經濟新聞社, 1983 참조.

15) 李亨純, “明治維新과 經濟發展”, 『亞細亞研究』, 第XXVII卷, 第2號,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4. 7, pp. 103~104 참조.

16)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2.

17) G. Myrdal,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1956 참조.

因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分明하다. 相對的 貧困感이 深化되어 있는 狀況아래서 몇 % 成長했다 또는 할 것이라는 總量指標나 物價를 몇 %에 安定시켰다는 公示는 國民的 合意를 모으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 耐久消費財의 小型化와 貯蓄率의 提高

現在 우리나라의 外債累計殘高는 431 億弗에 달했고 國際收支의 經常收支赤字는 13 億 6 千萬弗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生産해 내는 實質 GNP 보다 높은 水準의 生活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대로 國際收支 黑字國은 자기나라가 生産하는 實質 GNP 보다 낮은 水準에서 生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外債累積의 原因은 말할 나위도 없이 海外貯蓄을 통한 資金調達方式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은 거꾸로 보면 國內貯蓄의 不振한 데서 오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 民間貯蓄率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唯獨 높은 까닭은 自動車, 냉장고 등 이른바 耐久消費財의 小型化에서 그 主要原因을 日本의 經濟學者들은 찾고 있다.¹⁸⁾ 日本의 企業들이 小型의 耐久消費財를 만들어 國民들에게 供給했기 때문에 國民들의 消費負擔이 줄어 상대적으로 貯蓄率이 상승할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企業側에서 보면 小型을 만들든 大型을 만들든 간에 生産工程은 같다. 따라서 生産費에서 차지하는 勞賃의 比重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企業이 이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企業이 重化學工業化의 政策資金으로 支援받은 것이 國民의 稅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認識하고 國民에게 奉仕해야 한다는 企業家의 社會的 責任, 企業家 精神이 투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싶다. 또한 消費者도 自己의 分수에 알맞는 合理的 消費行動을 하였으며, 이것이 內需의 뒷받침이 되어 大規模 生産을 可能케 하였고 西歐의 重化學工業化의 패턴과는 달리 短時日內에 重化學工業化를 달성시킬 수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耐久消費財의 小型化는 비단 民間의 貯蓄率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經濟成長의 成果를 國民에게 고루 配分하는 역할을 아울러 하게 되어 發展에서 오는 「相對的 貧困感」을 解消시켜 發展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모으게 하는 實質的 手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耐久消費財의 小型化의 重要性을 간과하기가 쉽지만 한 나라 經濟의 發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한때 70 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大型 自動車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앞을 다투면서 잘 팔린 적이 있었다. 매우 對照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18) 渡部經彥, 『數量經濟分析』, 創文社 1969 참조.

3. 重化學工業化的 要件

(1) 우리 經濟의 現況

우리 經濟는 輸出指向型 工業化를 통하여 產業構造, 輸出構造를 高度化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否定할 수는 없지만 今後의 發展展望은 重化學工業化를 얼마나 잘 選別的 및 效率의로 推進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化의 方向設定이나 그 育成方法에 대하여서는 多樣的 評價가 내려지고 있지만, 그 줄기를 대체로 보면 重化學工業化 過程에서 中間財, 原資材에 대한 輸入代替가 深化되어 있다는 肯定的인 持論(小島・渡邊教授 論文)과 重化學工業部門의 輸出促進은 經濟를 中間財, 原資材의 輸入依存型經濟로 만들었다는 것 같은 持論(金迪教授 論文)으로 되어 있다. 또한 重化學工業化政策에 있어서 重複投資 등 그 政策的 非效率性을 지적하는 持論(邊衡尹教授 論文)도 있다.¹⁹⁾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을 戰略產業으로 育成하는데 있어서 지적되는 問題點은 이상과 같은 重複投資에서 온 非效率性和 이와 關連되는 것이지만 產業構造의 相互 關聯關係(예를들어 產業關聯分析에 있어서의 後方關聯效果 등)을 無視하고 產業基地 베이스(base)에 의한 過多한 政策資金의 支援 등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政策樹立過程에서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政策當局에 따르면 1977년에서 1978년에 걸쳐 總投資資金에서 70%가 넘는 資金이 重化學工業 育成에 投入되었다. 이러한 重化學工業의 育成政策은 다음 두 가지의 問題點을 야기시키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大企業으로 하여금 投資事業에 대한 過當競爭에 임하게 하여 熟練勞動力에 대한 超過需要를 유발시킨 결과 潛在的 勞動力의 供給能力은 存在하면서도 一時的으로 勞動不足型經濟로 進入한 것 같은 樣相을 보이게 하였다. 다른 하나는 大企業의 勞動力에 대한 超過需要는 大企業部門의 賃金上昇을 加速化시켜 이것이 다른 部門의 賃金を 上昇시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러한 종류의 인플레이션이며, 「스필·오버 인플레이션」(spill-over inflation)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때에 附加價值稅制가 도입되어 인플레이션은 더 한층 加速化되어 마침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強力한 安定化政策으로 政策基調의 方向轉換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2) 先進諸國의 重化學工業化 類型

先進諸國의 重化學工業化過程에 대한 國際比較研究를 보면, 輸入代替型 工業化

19) 朴宇熙・渡邊利夫編, 『韓國의 經濟發展』, 文眞堂, 1983 참조.

가 成功했고, 輸入代替工業化가 經濟成長을 促進시킨 效果가 무려 50%나 된다고 한다. 또 國內市場의 크기를 人口의 數를 가지고 代理變數를 使用해서 보았지만 그 效果도 매우 크다고 한다.²⁰⁾

日本을 포함해서 歐美先進諸國의 工業化 過程을 보면 機械工業에서 化學工業으로 移轉해 갔다. 日本의 重化學工業化는 「投資需要依存型」으로 短期間에 推進되었지만 歐美의 重化學工業化는 「消費需要依存型」으로 長期間에 걸쳐 發展해 갔다. 消費, 投資의 內需이외에 外需로서의 輸出을 고려해야 하는데, 國際比較의 견지에서 經濟成長이 높은 나라일수록 輸出面에서 重化學工業化가 進展된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輸出에 의한 全製造生産誘發額 중에서 重化學工業生産이 차지하는 比重이 1955년의 40%에서 60년에 오면 50%에 달한다. 같은 期間을 前後하여 主要先進工業國의 그 比重은 60%에서 75%나 된다. 이것을 보면 日本의 重化學工業化는 內需中心으로 推進되었으며 國內生産의 重化學工業化 先行型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편 歐美의 경우는 輸出의 重化學工業化가 國內生産의 그것을 上廻하면서 兩者가 相互促進의으로 進展한 類型이었다. 日本의 경우 輸出은 經濟成長을 위한 必要條件이었던 것은 否定할 수는 없지만 그 充分條件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投資需要가 갖는 역할과 國內市場擴大가 支柱가 되었다.²¹⁾ 이 點은 그 당시 GNP에 차지하는 輸出依存度가 10% 정도였다는 事實에 비추어 보아도 確認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日本이 比較的 短時日內에 重化學工業化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要因은 內需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耐久消費財의 小型化라는 日本特有의 消費패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3) 技術導入과 改良工學

後發國이 工業化를 推進시키는 데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잇점은 거센크론教授가 주장했듯이 先進工業國으로부터 技術을 導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年 처음으로 國內製藥業體가 西獨과 美國으로부터 技術을 導入하기 시작한 이래 66년까지만 해도 그 實績이 15件으로 지극히 不振했으나 72年末에는 總 327件으로 增加하였다. 導入國別로 보면 美國 73件, 日本 228件, 西獨 10件, 기타 16件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日本으로부터 導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20) H.B. Chenery,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0 참조.

21) 官澤建一編, 『産業機構』, 筑摩書房, 1971, pp. 17~32 참조.

導入技術이 後發國에 定着되려면 ① 資源이나 輸送 등의 自然條件, ② 그 나라가 導入技術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 ③ 近代産業에서의 技術水準의 停滯, ④ 獨占, 그리고 ⑤ 그 나라의 經濟政策 등에 비추어 보아 技術導入要求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日本은 歐美로부터 技術을 導入하여, 이것을 改良하였다. 이것을 大川一司와 로소후스키(H. Rosovsky) 教授들은 「改良工學」(improvement engineer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日本이 稀少한 資本을 철저하게 利用한 또 하나의 領域이 있다. 이것이 改良工學이라는 기능을 發展시켰다. 日本의 經濟的 近代化를 概觀해 보면 곧 알 수 있지만 核心的인 發明이란 사실상 찾아 볼 수가 없다. 基礎的 技術은 美國이나 구라파에서 導入되었지만 흔히 導入者에 의해 組織的으로 改良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종류의 活動은 日本의 企業家 사이에 뿌리깊게 내려진 傳統이 되어 버렸으며, 수많은 歷史的이고 現代的인 例를 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여러가지 例를 들고 있다.²²⁾

技術을 도입하여 改良한다는 것은 基本的인 發明은 못된다. 그러나 經濟的 效果는 매우 크다. 즉, 改良工學은 導入技術을 生産的으로 만들며, 실제로 費用을 덜어뜨림으로써 採算이 맞지 않는 技術도 採用하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努力을 통하여 하나의 技術이 經濟的이 되면 國內外 市場을 擴大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規模의 經濟를 누릴 수가 있다.

한편 改良工學은 勞動者의 質을 向上시킨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드는 製品에 대하여 「注意깊은 分解와 섬세한 改良을 수반하는 結合」의 活動이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生産과 直結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技術을 改良하는 活動은 쉘페터(G.A. Schumpeter)가 말하는 核心的 「技術革新」은 못되지만, 후에 이를 利用하는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確認된 方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基礎研究(basic R&D)에 비하여 費用도 적게 든다. 이러한 改良工學이야말로 日本의 導入技術을 가지고 歐美先進經濟를 따라잡아야 하겠다는 工業化 過程에서 매우 重要な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고 大川一司, 로소후스키 教授들은 강조하고 있다.

물론 日本人이 改良工學에 能한 原因은 日本人의 行動樣式이나 오랫동안 절친 社會的 風土, 歷史的 背景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보지만,²³⁾ 보다 가까운 原因은 日本人이 基礎研究開發보다 應用研究開發에 적합한 知力分布狀態를 가지고 있다는

22) 大川一司・H. Rosovsky, 『日本の經濟成長—20世紀にあける趨勢加速』, 東洋經濟新報社, pp.266~2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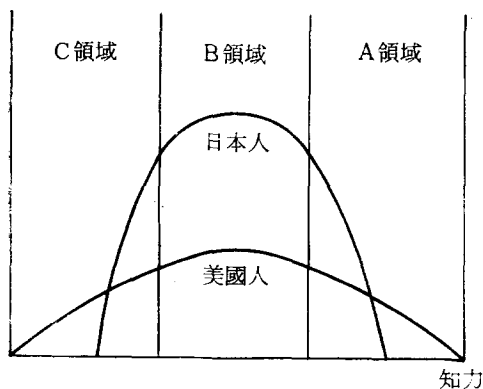
23) R.C. Christopher, *The Japanese Mind*, 1983 참조.

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림 5〉는 日本人과 美國人의 知力分布를 비교한 것이다.²⁴⁾ 美國人と 日本人의 階層的 分布를 보면 美國의 경우 엘리트와 大衆의 知識差의 分布가 넓고, 日本의 경우는 中間에 比較的 많다. 그러나 새로운 劃期的인 技術革新을 낳은 것은 이 그림의 A領域이므로 美國이 日本보다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分野의 專門家에 따르면 1925年~1955年에 걸쳐 世界에 君臨한 美國技術의 優位는 이것을 말해 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技術突破가 없어지고, 生産技術이 勝負를 결정할 때에는 B領域과 C領域이 競爭을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어떻게 만드느냐(how to make)하는 것에는 日本이 有利하다는 것이다.

1955年 以後 日本産業이 國際競爭力에서 優勢하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즉, 今世紀에 들어서서 텔레비전, 트랜지스터, 半導體, 컴퓨터, 레이더, 原子力, DDT, 페니실린, 나이론, 포리에스텔, 纖維 등의 분야에서 技術革新이 이루어졌지만, 1955年 이후 새로운 技術革新이 停滯하였고, 그 대신 自動車와 텔레비전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의 競爭이 벌어졌고 이 競爭에서는 B領域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事實에서 日本의 國際競爭力의 優位性이 찾아

〈그림 5〉 日本人과 美國人의 知力分布



子力, DDT, 페니실린, 나이론, 포리에스텔, 纖維 등의 분야에서 技術革新이 이루어졌지만, 1955年 이후 새로운 技術革新이 停滯하였고, 그 대신 自動車와 텔레비전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의 競爭이 벌어졌고 이 競爭에서는 B領域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事實에서 日本의 國際競爭力의 優位性이 찾아

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日本의 技術을 뒷받침한 것은 中間管理 혹은 勤勞者層의 優位가 日本産業의 發展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後發國이 工業化를 推進하는데 있어서 人間資本(human capital)이 무엇보다 重要하며, 넓은 의미에서 百年大計를 내다 볼 수 있는 教育制度의 改革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4) 日本株式會社論

日本이 重化學工業化를 成功시키는 데 官民協調體制 아래서 有能하고 愛國的인 官吏들의 힘이 컸다는 것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官民協調體制를 흔히 「日本株式會社論」이라고 한다.²⁵⁾

24) 牧野 昇, 『研究開發의 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61, p. 61 참조.

25) 篠原三代平, 『經濟大國의 盛衰』, 東洋經濟新報社, 1982, pp. 184~206 참조.

예를들어 1950년대 초반에 戰略産業으로 自動車工業을 育成하려 할 때 그 無用論이 支配的이었으나 日本의 通商省 官吏들은 자동차공업을 高度化시킨다는 것은 機械工業, 나아가서 産業全盤을 高度化시키고, 이것은 또한 國際競爭力을 높여 自動車工業으로 하여금 先進國을 따라잡게 하여 國民經濟를 發展케 하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950年 그 당시 美國의 乘用車 生産은 6백 66만 6천대, 日本은 1천 6백대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美國 6백 37만 6천대, 日本은 7백 3만 8천대로 사태는 역전되었다. 育成政策에 있어서도 通商省 官吏들은 무엇이 戰略産業이고 成長産業인가를 판단한 다음 「한 企業에 하나씩」 自立할 때까지 보살피 주었다. 한편 企業들도 保護育成의 代價로 國民에게 보답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다. 「혼다」와 같은 작은 乘用車는 그 좋은 예라고 하겠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耐久消費財의 小型化」는 發展過程에서 살생하는 國民들의 「相對的 貧困感」을 解消시켰을 뿐만 아니라 民間貯蓄率을 높여 海外貯蓄에 의존함이 없이 重化學工業化를 完成시켰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최근 介入主義(activism)와 非介入主義(non-activism)가 經濟理論에서 최대의 關心事가 되어 있으며, 케인즈主義의 介入主義를 흔히 「하비街의 前提」(presupposition of Harvey Road)라고 부르고 있다. 케인즈가 『一般理論』(1936년) 끝머리에서 “어떠한 政治家라도 意識하든 하지 않든 간에 지나가 버린 經濟學者(defunct economist)의 思想에 지배받는다”²⁶⁾고 말한 이 問題에 대해 ① 公共精神에 투철한 엘리트에 의한 政策決定 假說, ② 엘리트의 說得力 假說, ③ 經濟學者의 純粹한 技術者的 行動假說 등多樣하게 그 解決이 내려지고 있지만, 케인즈가 엘리트 支配論을 주장했다는 부분을 잘 읽어 보면 國家가 「해야 할 일」(agenda)과 「해서는 안 되는 일」(non-agenda)을 구별할 수 있는 「賢명한 政府論」을 펼쳤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4. 國土의 效率의 活用

한 나라의 經濟發展은 幅넓게 보아 그 나라의 國土, 自然條件, 歷史的 諸制度, 文化, 그리고 사람들의 慣習 등, 여러가지 多樣한 要因에 의해 左右되는 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國土가 매우 狹少하므로 産業立地條件을 철저히 감안한 國土利用計劃 밑에서 長期的 眼目에서 重化學工業化의 方向設定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6) J.M. Keynes, op.cit., 1936, pp.383~384 참조

(1) 産業立地條件과 知識産業構造

우리나라의 産業立地面積은 全國土의 0.3%이며 日本의 그것(0.3%)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된다. 日本도 産業立地面積의 狹少性을 감안하여 重化學工業化에 必然的으로 수반되는 産業公害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資源多消費型的 重化學工業構造에서 知識産業構造로의 轉換과 産業構造의 再調整을 꾀하고 있다.

1974년에 日本은 輸出面에서 ① 勞動集約的 商品 14.5%, ② 資本集約的 商品 37.5%, ③ 資源多消費型 資本集約的 商品 21.5%, ④ 知識集約的 商品이 21.5%의 構成比를 각각 보였으나 1985년에는 ① 9.5%, ② 32.0%, ③ 19.5%, ④ 39.0%로 知識集約的 商品輸出構造로의 轉換을 期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日本은 電子(electronics) 革命의 新技術開發에 있어서도 선두주자(first runner)가 되어 있다.

한편 自由世界에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한 中共은 9億의 人口를 거느리고 새로운 競爭的 社會主義의 理念 밑에서 農業·工業·國防·科學技術의 4個 分野에서 近代化를 促進시키고 있는데 鄧小平은 1978年 4月 22日에서 5月 16日에 걸쳐 北京에서 열린 全國教育工作會議에서 教育의 質的 向上과 科學·文化의 教育水準을 높이기 위한 基本方針을 提示하고, 教育事業이 必然的으로 國民經濟發展의 要請에 附應해야 한다는 것을 想起시키고 教師의 職務를 尊重하고, 教師의 質的 向上을 강조하였다. 또한 勞動集約的 商品의 輸出은 물론, 최근에는 世界 穀物市場에 輸出國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러한 周邊國의 動向과 우리나라의 産業立地條件을 감안할 때 우리 經濟는 역시 知識産業構造로의 進路를 開拓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教育制度의 改革, 그리고 教育投資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²⁷⁾

(2) 土地所有와 所得隔差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土地에 대한 公概念이 거론되고 있지만, 日本은 土地政策에 대하여서는 發展에서 오는 所得分配의 不均等化를 막는 데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 1960年 高額所得者의 上位 50名의 平均所得을 一般勤勞者의 平均賃金과 비교하면 190倍 정도였지만, 1969년에 오면 800倍 以上으로 그 隔差가 벌어졌고, 1971년에 와서는 1,000倍를 넘었다. 이렇게 所得의 隔差가 크게 벌어진 까닭은 土地를 賣買한 臨時收入에 있으며, 土地에 대한 規制가 있었다면 發展過程에서 所得分配은 均等化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27) 李亨純, 『知識産業構造와 教育投資』, 韓國經濟研究센터, 大韓商工會議所, 1979. 참조.

28) 加藤寬編, 『日本型 最適社會』, 日本 生産性本部, 1972, pp.55~56 참조.

5. 農・工 併進論

(1) 國入市場擴張

二重經濟構造아래서 發展하는 後發國에서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農・工 併進이다. 이는 農業部門과 工業部門이 같이 成長한다는 의미에서는 均衡成長論이라 하겠지만 너시(R. Nurkse)가 말했듯이 均衡成長이니 不均衡成長이니 하는 말은 오로지 表現上的 문제이며, 農業과 工業이 補完的으로 發展(linked progress)하여 國內市場을 擴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農・工併進論이란 後發國이 工業化를 促進시킬 때 海外市場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先進諸國의 通商政策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므로 國內市場을 위주로 工業化를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시의 주장이다.²⁹⁾ 즉, 農・工業進論이란 工業部門에서의 成長은 農村의 僞裝失業을 工業部門에서 吸收하게 되므로 「技術導入→生産提高→農家所得向上→農村의 近代化」라는 메카니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³⁰⁾ 發展의 初期段階(明治時代)에 있어서 日本은 農業部門에서 發展의 剩餘를 創出하여 外資에 의존함이 없이 發展했다는 사실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또한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이 在來部門(中小企業 등)의 潜在的 成長能力을 活用하면서 均衡成長을 했고, 第1次大戰以後부터 近代部門에서 重化學工業化가 推進되면서부터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의 生産隔差(賃金所得隔差)가 벌어지면서 不均衡成長을 했지만, 1950年代 中반에 오면 그 隔差도 解消되었던 것이다.

中共도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農業・工業・國防・科學技術의 4個 分野에서의 近代化를 促進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農・工併進論으로 外資에 의존함이 없이 國內市場을 擴張시키면서 輸入代替型 工業化를 基本戰略으로 삼을 것은 분명하다.

(2) 輸出指向型 工業化의 問題點

1960年代末부터 1970年代에 걸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新生工業國家들」(NICS)은 輸出指向型 工業化 또는 輸出主導型 成長을 통하여 高度成長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들 新生工業國들은 1960年代 中盤부터 종래의 輸入代替型 工業化政策에서부터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으로 轉換한 것이다.

29) R. Nurkse,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1959, p. 43 참조.

이렇게 함으로써 國內販存資源에 적합한 勞動集約的 製品의 輸出이 擴大되어 經濟成長이 촉진된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녀시敎授가 지적했듯이 1970年代의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 激動하는 世界經濟의 通貨體制의 動搖 등으로 世界經濟가 減速化 時代에 돌입하자 날로 높아지는 先進國의 保護貿易政策의 장벽으로 輸出指向型 工業化의 限界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IV. 經濟運營에 대한 評價

말할 나위도 없이 開發戰略이 長期的인 것이라면 經濟運營은 短期的 政策基調를 말한다. 短期가 쌓여서 長期가 된다면 短期的 經濟運營의 基調는 長期的 發展의 方向을 決定하는 법이다. 그래서 經濟運營에 대한 基本的인 몇 가지의 問題點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1. 成長政策

우리나라의 經濟運營의 基調는 1979年을 基準으로 해서 그 以前을 成長通貨 供給方式에 의한 成長追求型 基調, 그 以後를 通貨供給kontrol에 의한 安定化政策基調로 나누어서 評價할 수가 있을 것이다.

自動車 자체를 發展메카니즘이라고 한다면 經濟運營은 이것을 運轉하는 데 해당될 것이다. 自動車가 出發할 때에는 「악세레터」를 밟아야 하며, 언덕을 올라가려면 더 한층 강하게 밟아야 하겠지만 언덕을 내려갈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常識에 속하는 이야기이겠지만, 문제의 초점은 現在의 政세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판단한다고 해도 適期에 政策을 취할 수 없는 이른바 政策時差問題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다.

日本의 經濟的 近代化의 過渡期(1869年~1881年)를 보면 1876년까지는 比較的 制度的 改革에서 오는 여과가 잠잠했으나 그 이후부터 1881년까지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明治政府는 어떠한 過渡期 동안 通常經費를 메꾸는 데 충분한 收入이 없었다. 따라서 政府와 銀行은 紙幣를 마구 찍어내어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고, 農業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利益을 줄 수가 없었다. 1881년부터 松方正義 財相이 4年間に 걸친 심한 디플레이션 政策으로 인플레이션을 휘어잡게 되었으며, 1880년대 중반부터 쿠즈넛츠(S. Kuznets)가 말하는 이른바 「近代經濟成長」(modern economic growth)의 「自己維持的 成長」(self-

30) 李亨純, 前論文, 『亞細亞研究』, 1984, pp.87~93 참조.

sustained growth)³¹⁾의 初期局面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時期에 實質的 成長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自己維持的 成長」은 아니었지만 輸出을 통하여 成長한 時期였으며, 케인즈의 財政政策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고 보고 있다.³²⁾

우리 韓國經濟에 관한 1960 年代의 經濟成長과 인플레이션의 關係를 分析한 日本人 山下彰一教授의 計量모델分析이 있는데,³³⁾ 여기에서 모델의 내용을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³⁴⁾ 이 모델은 實物經濟와 金融經濟를 接合시킨 方程式 19 個로 구성되어 있으며 2 次 5 個年計劃을 評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① 計劃期間에 걸쳐 年平均 實質成長率을 12%로 볼 때 物價上昇率(一般物價指數 1963 年=100)은 17.6%, ② 7%로 成長할 때 物價上昇率は 19.4%, ③ 成長率이 10%의 경우 物價上昇率は 19.2%로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結果를 보이고 있다. 이는 成長率이 높을 수록 物價의 下昇率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며, 우리의 常識을 뒤엎는 結果를 보여 주고 있다. 山下教授에 따르면 過去의 추세(1953 年~1968 年)대로 經濟가 發展한다면 實質經濟成長率은 12%가 豫想되는데 2 次 5 個年計劃에서는 10%로 策定했기 때문에 物資供給豫想을 낮게 책정하여 需要壓力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므로 目標成長率이 10%의 경우에 12%의 경우보다 物價의 上昇壓力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物資供給의 伸張率이 需要의 伸張率을 上廻하는 施策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요컨대 潛在的 成長能力이 존재하는 二重經濟에서 成長率의 鈍化는 物資供給의 減少(生産能力의 減少)를 초래하여 物資不足이라는 異端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物價의 上昇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950 年代에서 1960 年代에 걸쳐 日本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했던 成長通貨論도 이러한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自動車가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악세페터」를 밟아야 한다는 論理와 같은 것이지만, 이러한 메카니즘은 언제나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970 年代 중반에 重化學工業育成을 위한 政策資金은 總投資資金의 70%나 되어서 인플레이션을 惹起시키고 있는 渦中에 1977 年 7 월에 導入된 附加價值稅制로 1977 年과

31) S.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Findings and Refl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3.

32) Shunsaku, Nishikawa, Osamu Saito, "Economic History of the Restoration Period Revisited," *UNU Conference on the Mei Ji Restoration*, Oct. 1983, p.3 참조.

33) 山下彰一, "韓國金融構造的特質——實物・金融接合モデル(こらろ分析)——," 『アジア經濟』, アジア經濟研究所, 1968 참조.

34) 李亨純, 『安定化政策의 類型』, 韓國經濟研究센터, 大韓商工會議所, 1980, pp. 111~120 참조.

1978 年의 消費者物價는 각각 10%, 18%로 뛰어 올랐고, 그 당시 政府는 8백 50여 品目에 대하여 價格公示를 함으로써 便乘引上을 방지하려 했지만 物價는 올라갔고, 심지어 非課稅品인 生鮮, 食用品까지도 稅率이 상으로 크게 올라 食用品의 都賣物價가 1977 年과 1978 年에 21%로 크게 올라가 부득이 1978 年 下半期부터 強力한 緊縮政策基調로 轉換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重化學工業育成을 위한 成長政策은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³⁵⁾

2. 安定化政策

1978 年 後半期부터 취해진 강력한 緊縮政策은 그 基本方向에 있어서 옳은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國內景氣를 침체시켰다. 즉, 物價를 뛰어잡을 수가 있었지만 그 대신 失業率이 증가하여 不況을 深化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1970 年代 末에 英國도 강력한 緊縮政策으로 物價의 下昇率을 거의 절반으로 휘어 잡았으며, 美國은 1976 年~1980 年의 平均의 通貨增加率 8%를 1981 年에는 4.7%로 줄였지만, 나타난 結果를 보면 英國은 3 백만명의 失業者가 발생하여 한 때 勞働者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기도 하였으며, 美國 역시 不況에서 탈피할 수가 없었고, 1982 年에는 10%의 失業率에 시달리고 있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狀況 아래서는 「줄(緊縮政策)은 당길 수는 있지만 밀 수는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西獨과 日本은 1970 年代의 「스태그플레이션」의 危機를 總需要管理政策이 아니라 總供給管理政策으로 다루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라우랑(Y. Laulan)은 이 두 나라를 “센시블 칸트리즈”(sensible countries)라고 했다.³⁶⁾

1970 年代에 두 차례의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西獨과 日本이 傾注한 努力을 보면 먼저 西獨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굴복하지 않고 石油波動 以前의 擴張經濟(投資計劃)로 되돌아 갈 計劃들을 세웠고, 租稅改革을 단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政府豫算을 줄였다. ② 民間設備投資 마인드(mind)가 되살아나 石油波動 以前의 水準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다. ③ 企業의 財務構造가 強化되어 內部資金調達比率은 80%를 넘여섰다. ④ 勞組도 社會的 合意에 힘입어 適切한 賃金을 要求했다. ⑤ 적절한 消費支出로 長期貯蓄을 可能케 했다. ⑥ 生産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設備投資가 뒤따랐다. ⑦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投資를 계속했다.

35) 李亨純, “不況 언제 끝나나”, 『新東亞』, 1982. 7, p. 253 참조.

36) Y. Laulan,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Cheating with Apologies to J.M. Keynes*, 1981, pp. 75~80 참조.

한편 日本의 경우를 보면 ① 通貨供給량의 增加率을 1973 年の 25%에서 1974 年には 10%로 줄였고, 財定豫算緊縮을 단행하는 한편 景氣回復의 戰略을 財政赤字資金調達에서 찾았다. ② 인위적으로 「円」貨의 相對的 低評價를 견지하면서 輸出을 늘렸다. ③ 日本의 通商省은 1978 年 法令을 마련하여 採算性이 없는 鐵鋼産業纖維産業 등을 과감히 정리하고, 電子産業과 같은 未來의 成長産業을 적극적으로 支援하여 産業構造의 再調整을 재빨리 단행했다. ④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여 生産單位當 石油消費를 줄여 鐵鋼産業 30%, 化學産業 23%, 시멘트産業 14%, 自動車産業 37%를 줄였고, 國際競爭力을 強化시켰다. ⑤ 輸出에 있어서 鐵鋼, 石油化學造船의 比重이 떨어지고 機械工業의 比重이 증가했고 輸出對象 地域도 中共, 東南아시아, 石油輸出國(OPEC), 中進 開發途上諸國으로 옮겨갔다. ⑥ 石油波動에서 온 부담을 企業이 모두 부담했다.

이렇게 두 나라의 經濟運營은 언덕을 올라갈 때 「악세레타」를 밟았고 언덕을 내려갈 때에는 「브레이크」를 適期에 밟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얼마전에 우리 經濟에서 왜 지금 投資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問題가 거론되었다. 케인즈가 강조했듯이 經濟가 격동하여 未來의 「不確實性」(uncertainty)이 支配的일 때에는 投資는 投資의 豫想收益率과 利子率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고 다만 企業家の 「血氣에 찬 蓄積意欲」—케인즈는 이것을 「에니멀·스피릿」(animal spirit)라고 불렀지만—만이 살아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投機家가 판을 치게 되어 着實한 企業家들까지도 投機家로 전락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不動產에 대한 投機心理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³⁷⁾

V. 結 語

얼마전에 東亞日報 紙上(1983 年 2 月 5 日字)에서 어느 外國人은 「世界속의 韓國」이라는 글에서 ① 韓國은 아직도 農村人口의 勞動力을 活用할 수가 있으므로 工業化의 潛在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 ② 「生活全體의 效率性 提高」를 통하여 貯蓄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는 것, ③ 臺灣(情報處理機械 등의 技術集約의 産業), 싱가포르(保護主義의 장벽에 걸리지 않는 産業)는 開發戰略을 推進시키고 있는데 韓國에 있어서도 開發戰略에 대한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開發戰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開發戰略이라는 發展메카니즘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重要한 일이겠지만,

37) 李亨純, “왜 投資는 없고 投機만 있는가”, 『新東亞』, 1983.6 참조.

지금은 發展메카니즘이라는 「버스」에 타고 있는 乘客들의 「相對的 貧困感」, 二重經濟의 擴大過程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解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緊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長期的 眼目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國土가 狹少한데다 南北分斷의 現實, 人口는 1962 年에 26.5 백만명에서 1981 年에는 38.7 백만명으로 그동안 46%나 증가했고, 지금은 4 천만이 넘어섰다. 人的資源(人間資本)이 經濟에 주는 寄與도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長期的 開發戰略의 調題는 國土의 效率的 活用과 사람들을 어떻게 敎育하느냐에 대한 百年大計를 내다 볼 수 있는 敎育改革이 要請되는 것이다.

케인즈는 「우리들의 子孫들의 未來의 經濟的 可能性에 대하여」라는 講演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1930 年)보다 8 倍정도 잘 살 수 있다면……우리들의 子孫들은 그다지 큰 戰爭이나 人口가 심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가난에 시달리는 「經濟問題」란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未來를 내다 볼 때, 經濟問題는 人類의 永遠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날 孔子가 강가를 거닐다가 새 한 마리를 쥐고 있는 少年을 만났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소년은 새라고 대답하였다. “그 새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소년은 “글쎄요, 날려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孔子는 “애야, 새는 네 손에 있어, 네 손안에!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야”고 하였다. 확실히 未來는 다름아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현명한 우리 손에…….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Development Mechanism of Dual Economy and Relative Deprivation

Hyung Soon Le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orean economy within the context of growth and stabilization policies since 1960s up to now.

First of all, this paper attempts to make a shed of light on the Korean economic growth from the long-term point of view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s for a late comer to be industrialized, especially in reference to Japan's experiences of development strategy since the MeiJi Restoration as well as Japan's postwar political and economic experiences.

Secondly, like the Japanese economy, this paper shows the Korean economy can be characterized as the dual economic structure composed of indigenous (agricultural) sector and modern (industrial) sector with abundant supply of labor force, such as W.A. Lewis's type of a development model in which a turning-point hypothesis plays an important role. However, in this paper, no attempts can be made to provide any empirical tests on the turning-point hypothesis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mainly because of the lack of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stead, a normative hypothesis for the Korean growth process is asserted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three stages of the long-run development:

- (1) At the initial stage of take-off of the Korean growth started from the early 1960s until the middle of 1970s, the relative share of profit income had been sharply increasing to that of wage income because of the fact that development strategy was designed to promot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inflationary financing at the expense of wage

income. This stage of development might be called as the process of widening gap of the relative share of income between profit and wage of dual economic structure.

(2) The second stage of Korean development had been proceeded between the period of 1977 and 1978. During this period wages in high productivity sector had sharply increased because of excess demand for skillful labor, which actually induced wage-hike in other sectors of lower productivity. In this respect, the run-away inflation in this period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spill-over inflation. From later part of the 1978 restrictive monetary policy has been taken until recently to cope with inflation. Although monetarist's argument succeeded in lessening the fever of inflation, it turns out that monetarism failed in curing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The outstanding feature of the second stage of its development can be said to be the relative deprivation, that its degree is to demeliorate because the difference of relative real wage among labor group is expected to increase.

(3) the last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stage toward economic maturity for advanced economy. In this stage, the dual economy can be dissolved and relative share of income distribution among income brackets can be expected to be equalizing. In this respect, the development strategy as a late comer should be placed on promoting dissolution of the dual economic structure.

In particular, this paper put an emphasis on the long-term factors such as the catching-up hypothesis advocated by A. Gerschenkron and an aspect of improvement engineering for borrowed technology from advanced countries in an imitative growth process as a late comer for industrialization in reviewing modern development of the Japanese economy.